

# 정치권 등 재조사 영향 일파만파 증권사 CEO 제재 수위 불투명



/유토이미지

## 살얼음판 증권가

금융당국, 검찰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재조사에 나서면서 증권업계에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의 투자금 수백억원이 가상화폐로 전환돼 일부 정치권으로 흘러갔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운용사는 물론 판매사인 증권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재조사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가늠할 수 없어 정치권, 증권업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인사 의혹 연루 도마위  
위법 적발시 대대적 수사 전망  
"정치자금 수사로 번질 수 있어"

## ◆증권업계, 정치권 긴장감 고조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를 전격적으로 발표하면서 3년 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펀드 비리 사태가 재점화되고 있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의 운용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 그 해 10월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을 선언한 사건이다. 이에 앞서 옵티머스는 2020년 투자 사기로 5000억원대 환매



지난달 24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기자회견실에서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이 3개 자산운용사(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에 대한 추가 검사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중단 사태를 초래했으며 디스커버리 또한 2019년에 25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

금감원 추산에 따르면 라임 펀드는 4473명에게 1조5380억원의 대규모 손실을 입혔다. 옵티머스 펀드는 884명에게 5084억원의 손실을 입혔으며 디스커버리 펀드는 1278명에게 2612억원의 손실을 각각 입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야무야 넘어갔던 사안을 이복현 금감원장이 강한 의지로 재검토한 데다 검찰도 라임 펀드 환매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운용사, 증권사 등에 대해 조사하면서 정치권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특히 3대 펀드 사건 모두 전 정부 인사와 관련돼 있어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이번 수사에서 기존에 밝혀지지 않았던 정치권 로비 의혹 등 새로운 위법 행위가 드러난다면 야권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야권 인사와 관련된 의혹이 확인될 경우 야권 인사들에 대한 정치자금 수사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증권사 CEO 최종 징계 관심 ↑

라임펀드 사태 재조사로 인해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최종 징계 수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받은 KB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등 증권사 CEO들에 대한 제재 심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금감원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양홍석 당시 대신증권 사장(현 부회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또 옵티머스 펀드 관련해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처분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금융위 심의에서 확정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조치부터는 징계 대상자의 연임이

나 금융권 취업이 향후 3~5년간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펀드 판매사들의 CEO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국정감사 이후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이달 13일과 27일에 열리는데, 추석 명절과 국감 준비를 고려하면 제재를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도.

업계에서는 향후 금융당국이 증권사 CEO 제재를 어떤 수위로 확정할지에 대해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선 금융당국이 과거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행정소송에서 일

부 패소한 만큼 이번 라임펀드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사 CEO 징계수위 관측 엇갈려  
국감 이후 결론... 법리적 분쟁 관건  
금융위 "제재, 내부 절차대로 진행"

반면 일부에서는 기존 법으로도 증권사 CEO를 충분히 중징계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DLF 판결 당시 법원이 모두 금융사 손을 들어준 것

이 아닌 만큼 이번 라임펀드 사태도 법리적으로 다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특혜성 환매 의혹의 초점이 판매사 연루 여부를 겨냥하고 있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중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라임 사태 재조사·재수사가 CEO 제재 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여부를 보고 있으므로 금감원 검사나 검찰 수사와 관계 없이 내부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증권업계 "투자자 불신 커져... 시장 악영향"

## >> 1면 '특혜의혹 재점화...'서 계속

증권업계에서는 잦은 수사와 조사로 인해 투자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올해 10대 대형 증권사 가운데 검찰의 압수수색, 금융감독원의 검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을 겪지 않은 곳이 없다. 라임펀드 환매 사태,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 채권형 랩·신탁상품 불건전

영업 관행,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발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 등의 사유로 증권사들은 조사를 받았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전례 없는 대형 이슈가 자주 터지고 있으나 결과가 전혀 없어 답답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당국이 증권사의 책임으로 모두 돌리는 것은 어려운 시장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관희 기자



금융의 모든 순간

## "자동차만 풀체인지?"

# 이제 운전자보험도 풀체인지

### NH다이렉트운전자보험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강화되는 교통법규에 맞춰  
특약과 보장을 확 넓혀 운전자를  
더 든든하게 지킵니다



**보장은 더 크게, 특약은 더 넓게 NH다이렉트운전자보험**



**[운전자 중과실 형사적 책임 보상]**  
해당 특약 가입시 /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약물상태에서 운전은 제외

① 자동차사고(인명·신체) 보상(중과실 제외)  
② 교통사고(인명) 보상  
③ 자동차사고(재산) 보상



**[비운전자까지 보장]**  
해당 특약 가입시

① 자동차사고(인명·신체) 보상(중과실 제외)  
② 자동차사고(재산) 보상



**[납입면제]**  
단 보험금 지급으로  
소멸된 납부 제외

교통사고(인명·신체) 보상(중과실 제외)



**[보험료 할인]**  
NH농협금융  
ESG캠페인 서약시 2%

ESG 실천사원·직원(인명)에 대한 관리를 받고  
ESG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는 임직원

\* 상품가입 전 직권과 충분히 상담하시고,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보험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고, 보험회사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보험계약자의 모든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의 계약원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탁(지급)을 함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의 보험계약은 예금보험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별 다수의 보험계약으로 체결되어 있는 경우(공제계약 포함)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스승존중지원금, 스승존중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등은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거나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는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시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지급한도 및 면책사항, 금액지급시한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02419호(2023.07.20~2024.07.19)

www.nhfire.co.kr  
1644-9000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NH농협손해보험이 응원합니다